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23
APR 10 2020

발간년월 2020년 4월 10일 (통권 제12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처음으로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안)' 수립
- 가즈프롬,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2 사전투자작업 추진
- 노르웨이 호닝스버그, 러시아 북극 LNG 환적지로 부상
- 북극 크루즈 운항무산, 북극 관광산업에 큰 타격 가져와
- 러시아 하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개정법안 통과
- 우크라이나, 코로나19에도 1분기 주요 항만물동량 상승

주요 통계

-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처음으로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안)' 수립

■ 러시아가 처음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중장기 전략(안)을 발표

- 3월 28일 러시아가 2050년까지의 기후 목표치를 고려한 중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안)을 공개했음
- 이 전략은 러시아의 첫 번째 국가 저탄소 전략이자 러시아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2050 기후 목표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망이다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67% 증가한 20억 8000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음
- 전략에 들어 있는 4가지의 시나리오 전망 중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의 64%인 19억 9000 톤으로 감소하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러시아가 2100년에 근접할 때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저탄소 발전 전략(안)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며, 또한 건물 단열을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촉진시킬 계획임
- 이외에도 전략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조명했으며, 일례로 러시아 북극해항로(NSR)가 열리면서 해운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 일각에서는 전략 내용과 2030년까지의 목표가 야심차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략은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 비즈니스와 정치계 엘리트 층의 관심을 반증한 것이라고 했음
- 저탄소 발전 전략(안)은 이제 타 정부 부처와 비즈니스 협회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됨

■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

- 러시아는 중국, 미국, EU,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 2019년 9월이 돼

서야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했음

- 이번 저탄소 발전 전략(안)에서 러시아는 기존 2030년 배출 감축량 목표치인 25%보다 높은 30%를 새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 말 유엔에 제출될 예정임
- 이 전략을 계기로 러시아 정계와 산업계 내에서 러시아의 경제 및 투자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김지혜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www.maritime-executive.com/editorials/russia-publishes-baby-steps-plan-toward-a-low-carbon-future> (2020.4.6. 검색)

가즈프롬,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2 사전투자 작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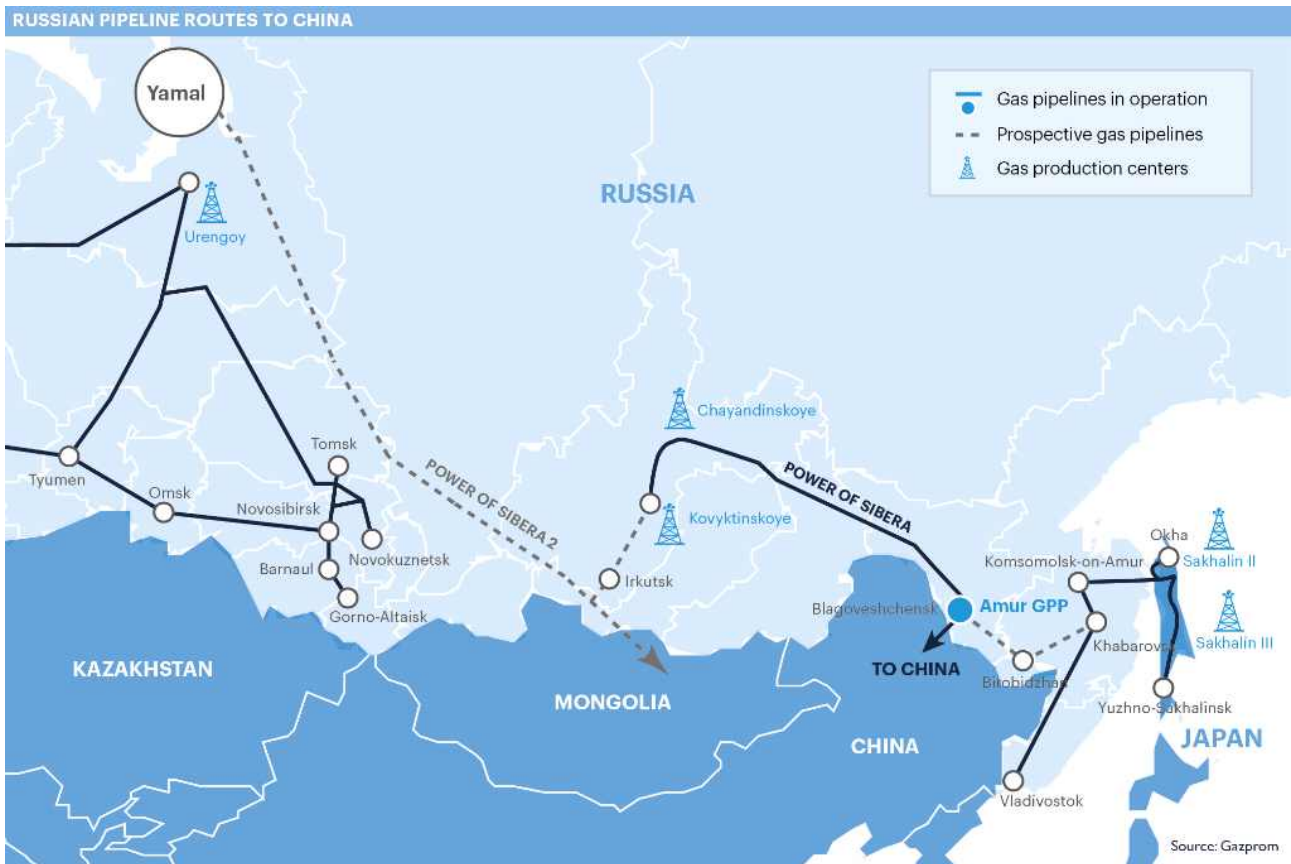
■ 푸틴 대통령이 사전투자 작업 지시

- 3월 27일 알렉세이 밀러(Alexey Miller) 가즈프롬(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운영위원회 의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가즈프롬의 2019년 성과와 2020년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했음
-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부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Power of Siberia 2)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가즈프롬에게 사전투자 단계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음
- 사전투자 단계에서는 타당성 조사 개발과 설계 및 조사 업무 등이 추진될 계획임

■ 중국 등에 천연가스 공급 확대 전망

- 러시아는 그 동안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가즈프롬은 2014년 5월 중국 CNPC와 4000억 달러의 공급계약을 맺고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통해 30년간 연간 380억m³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2일 가스관이 개통되어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시작됐음
-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550억 달러(약 65조원)를 공동 투자해 건설하였음
-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될 경우 연간 최대 500억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가즈프롬과 중국의 CNPC 간 계약된 연간 300억m³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임
- 러시아의 최대 유전은 서부시베리아 야말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해당 유전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을 통해 해당 가스전을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소비지로 연결할 경우 러시아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시장으로 자유자재로 가스를 보낼 수 있는 ‘스윙 공급자(swing supplier)’가 될 전망이다

그림. 러시아-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김지혜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전문연구원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https://www.gazprom.com/press/news/2020/march/article502475/> (2020.4.6. 검색)
- <https://www.icis.com/explore/resources/news/2020/03/31/10488588/gazprom-s-plans-for-power-of-siberia-2-pipe-to-china-move-forward> (2020.4.9. 검색)

노르웨이 호닝스버그, 러시아 북극 LNG 환적지로 부상

■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00만 톤 이상의 북극 LNG가 러시아 아이스클래스 급 유조선에서 노르웨이 LNG 유조선으로 환적되었음

- 러시아 노바텍(Novatek)과 노르웨이 츠디해운(Tschudi Group)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6월까지 특화된 아크7(Arc-7)급 유조선에서 기존 LNG 유조선으로 123번의 LNG를 환적하는 계약을 맺었음
- 이에 따라, 2019년 2월 19일 러시아 노바텍의 아이스클래스 급 유조선에서 노르웨이 츠디해운의 LNG 유조선으로 북극 LNG의 첫 환적이 이루어짐
- 환적지는 노르웨이 노드카프(Nordkapp) 근처의 호닝스버그(Honningsvåg)로 총 900만 톤 이상의 LNG가 수송되었음

그림. 아크-7을 이용한 북극LNG 겨울 환적 루트(사베타->유럽)



자료: Malte Humpert, High north news

■ 미국 정부의 중국 코스코 해운에 대한 제재로 노바텍과 츠디해운 간 LNG 환적이 재개되었음

- 2019년 당시 노바텍은 노르웨이 해상에서의 LNG 환적이 일회성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러시아 지역인 무르만스크의 동북단 킬딘 섬(Kildin Island)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 후에는 비디예보(Vidyaevo)와 콜라반도에 환적항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노

르웨이의 호닝스버그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코스코해운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2019년 9월 25일 코스코해운은 이란 석유 수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받음
- 코스코해운은 야말에서 유럽 및 아시아로 LNG를 운송하는 총 15척의 아크7급 LNG선 가운데 6개를 소유하고 있는 노바텍의 주요 운송 파트너임. 따라서 북극 LNG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됨
- 한편, 하이 노스 뉴스(High North News)는 2020년에도 노바텍이 호닝스버그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였으며, 그 근거로 환적 허용량이 연 165회에서 207회로 늘었고 그 중에 LNG 환적이 140회가 가능하다는 2019년 9월 30일 추디해운의 발표를 인용하였음.
- 추디해운은 호닝스버그 LNG 환적의 운영 범위 또는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보다 짧은 3월 22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공지함
- 작년까지 회당 3척의 배가 동시에 환적할 수 있었지만 올해 노르웨이 항만청의 환적 허용기준도 달라져 회당 1척의 배만 환적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작년과 같이 환적은 사르네스피오르드(Sarnesfjord)의 2곳과 카피오르드(Kåfjord)의 2곳에서만 가능하며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사르네스피오르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현재 호닝스버그 북쪽 40km 떨어진 노드카프에 러시아 LNG 유조선인 블라디미르 바이제(Vladimir Vize)와 추디해운의 LNG선 야말 스피릿(Yamal Spirit)이 대기하고 있으며, 2주내 최소 3척이 더 입항할 것으로 기대됨
- 작년에는 양측의 원활한 소통으로 최소 14척의 배가 동시에 호닝스버그에 도착해 환적에 참여하였음

■ 러시아의 LNG 노르웨이 환적은 북극 수송선의 운송거리를 단축하여 비용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옴

- 미국은 노르웨이의 북극 LNG 환적에 대해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 가스를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며 노르웨이를 비난함. 미 국무부는 "러시아 가스가 유럽 에너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유럽의 에너지 다각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노바텍은 노르웨이 연안에서의 환적 운영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인식하고 서구의 압박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자 2022년 무르만스크 근처에 영구적인 LNG 환적 허브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노바텍은 현재 북극 LNG 사업 확장에 따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럽 수출을 위해 노르웨이에 의존할 것임. 또한, LNG 환적은 값비싼 북극 수송선의 운송거리를 단축시키고, 기존 LNG 운반선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www.highnorthnews.com/en/novatek-and-tschudi-begin-transfer-lng-near-honningsvag-november> (2020.04.08. 검색)
- b)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faces-lng-critique-us> (2020.04.08. 검색)
- c) <https://www.highnorthnews.com/en/novatek-considers-returning-norway-transship-yamal-lng> (2020.04.08. 검색)
- d) <https://www.highnorthnews.com/en/nine-million-tons-russian-lng-will-be-reloaded-norwegian-waters-during-2019> (2020.04.08. 검색)
- e) <https://www.highnorthnews.com/en/novatek-and-tschudi-group-return-norways-honningsvag-transfer-lng> (2020.04.07. 검색)

북극 크루즈 운항무산, 북극 관광산업에 큰 타격 가져와

■ 올해, 신조 크루즈선 투입 등으로 북극관광 활성화 기대

- 노르웨이 크루즈 기업인 린드블라드 익스페디션(Lindblad Expeditions)에 따르면, 최대 126명의 승객을 목표로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엔듀런스(National Geographic Endurance)”호가 4월 3일 롱이어비엔(Longyearbyen) 항구를 출항해 1주일 간 스발바르 주변을 항해할 예정이었음
- 스발바르 해역의 최대 크루즈 업체인 후티크루텐(Hurtigruten)은 4월 23일 베르겐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북부 스발바르 항해가 예정되어 있었음. 현재 5월부터 9월까지 롱이어비엔에서 45번의 출항을 예정하고 있으며, 5월 5일 롱이어비엔에서 출발하는 “스피즈베르겐”호의 투어 상품을 비롯한 봄과 여름 시즌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이외에도 최대 수 백 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한 크루즈 업체들이 올 시즌 스발바르 투어를 개시할 예정이었음. 바렌츠 업저버에 따르면, 4월부터 8월까지 스발바르 북부와 동부의 얼음 해역을 연결하는 26척의 크루즈 관광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음

그림. 극지등급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엔듀런스”호



자료: Lindblad Expeditions

■ 코로나19 사태로 북극지역 크루즈 운항 전면 취소

- 현재까지 롱이어비엔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음. 스발바르 지방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기나 보트로 스발바르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한 14일 간의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발표함
- 본토인 노르웨이 국경은 폐쇄되어 오슬로와 트롬소 공항을 통해서만 스발바르로 이동이 가능함. 즉, 크루즈 승객은 스발바르 방문이 불가함.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모든 선박의 항해가 전면 중단되어 크루즈 운항에 차질이 불가피해짐

- 세계 대부분의 공항이 국경을 폐쇄했고,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북극 크루즈 운항을 무산시킴

■ 북극 크루즈 운항무산은 북극 관광산업에 큰 타격

- 노르웨이 오너랜드 관광협회(Honorland Hospitality Association)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관광 관련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으며, 고용 직원의 80% 이상이 해고되었음
- 노르웨이 북극 관광 업체 대부분은 소규모의 가족 사업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는 형태임. 북극 관광객의 90%가 외국인으로 크루즈 취소로 인한 관광업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임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travel/2020/04/unique-luxury-expedition-ship-was-supposed-have-her-maiden-voyage-longyearbyen-today> (2020.04.07. 검색)
- b) <https://www.sysselmannen.no/en/news/2020/04/the-governor-extends-the-quarantine-order/> (2020.04.07. 검색)
- c) <https://global.hurtigruten.com/destinations/svalbard/#voyages> (2020.04.07. 검색)
- d) <https://thebarentsobserver.com/en/travel/2020/03/hurtigruten-puts-cruise-operations-hold-two-ships-will-sail-supplies> (2020.04.07. 검색)
- e) <https://www.arctictoday.com/arctic-wilderness-tourism-is-hit-especially-hard-by-the-coronavirus/> (2020.04.07. 검색)

러시아 하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개정법안 통과

■ 러시아 하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관련 개정법안 채택

-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북극에서 LNG 생산 자격을 얻은 기업에 수출권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북극의 LNG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
- 2013년부터 야말 LNG 사업을 시행한 노바텍(Novatek)과 로스네프트(Rosneft)는 LNG 공장 건설과 플랜트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북극 산 LNG를 생산하기 시작했음
- 가스프롬(Gazprom)이 러시아 시장에서 LNG 수출을 독점함에 따라, 로스네프트와 노바텍의 독립적인 가스생산 수출시장 진출에 관한 논의는 수년째 계속되었음
- 개정법안에 따라, 기업들이 가스프롬의 중재 없이 단독적으로 LNG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로스네프트와 다수의 노바텍 프로젝트(야말 LNG, 북극 LNG-1, 북극 LNG-2, 북극 LNG-3)가 LNG 수출 자격을 가지게 됨

■ 러시아의 LNG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

- 개정법안은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파벨 소로킨(П. Сорокин)이 발의하였는데, 북극 LNG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향후 20년 동안 LNG 무역은 연간 약 3억 5000만 톤에서 연간 7억 톤으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러시아 LNG 생산능력은 연간 약 3000만 톤이며, 1억 2000만~1억 4000만 톤으로 증가할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
- 개정된 법안과 관련해서 러시아 에너지부는 필요한 규제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LNG 생산에 총 자원이 1조 5000억m³인 4개의 원유 산지를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북극 무르만스크와 캄차카 지역 LNG 가스전 개발 본격화

- 개정법안에 따라 수출권 확대를 적용받은 기업은 LNG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원 기반을 확장할 수 있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북극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바텍 프로젝트와 더불어, 무르만스크주와 캄차트카 변경 지역 가스전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며, 북극항로의 수송량이 증가할 것임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8122385>(2020년 4월 03일 검색)
- b) <https://neftegaz.ru/news/gosreg/539528-na-puti-k-140-mln-t-god-spg-gosduma-rf-odobri-la-v-1-m-chtenii-zakonoproekt-rasshiryayushchiy-pereche/> (2020년 4월 03일 검색)

우크라이나, 코로나19에도 1분기 주요 항만 물동량 상승

■ 1/4분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주요 항만 물동량은 지난 해 대비 상승세

- 3월 25일 미국 산 바켄(Bakken) 원유 8만 500톤을 적재한 그리스 선적 유조선 미네르바 퀴스노스(Minerva Kythnos)호가 오데사 항에 입항했고, 최근 수입 계약이 체결된 아제르바이잔 산 아제리 라이트(Azeri Light) 원유 8만 3700톤 또한 터키 제이한(Ceyhan) 항에서 적재가 완료됐음
- 바켄 원유는 크레멘추크(Kremenchuk)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운송될 예정이며, 아제리 라이트는 오데사-브로디(Odessa-Brody) 파이프라인을 통해 벨라루스와 EU국가들로 운송될 예정임. 이와 같은 항만-파이프 연계 석유 수입의 활성화에 힘입어 3월 원유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6%가 상승한 159만 2,000톤을 기록했으며, 1/4분기 전체 물동량은 403만 9,000톤을 달성하였음(전년 동기간 대비 3.4% 상승)
- 오데사 주(Odessa Oblast)에 소재한 피브덴니(Pivdennyi, 러시아어 유즈니Yuzhny) 항의 3월 물동량은 555만 9,100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사상 최고의 물동량을 기록하였던 2019년 8월보다 3.7%가 높은 20만 톤이 상승한 수치임. 한편 피브덴니 항의 1/4분기 물동량은 약 1,500만 톤이었으며, 전체 품목의 79.3%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은 비철금속, 석탄과 곡물이었음

■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항만 또한 물동량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선박 운항 횟수 및 대외 수입량은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

- 중남부 자포리자 주(Zaporizhia Oblast)에 위치한 베르단스크(Berdyansk) 항의 1/4분기 물동량은 37만 2,959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4분기보다 2.85배가 증가한 것임. 베르단스크 항 운영업체 아스켓 쉽핑(Ascet Shipping Ltd)는 23척의 선박에서 15만 3983톤의 화물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품목은 농산물로 밀, 보리, 옥수수, 수수, 해바라기씨앗 등이 대부분임
- 미콜라이우(Mykolaiv, 러시아어 니콜라예프Nikolayev) 항의 EVT 곡물터미널의 3월 수출량 또한 지난달 3월 7만 7500톤보다 3.5배 상승한 27만 2,400톤을 기록하였음. 주요 품목 15만 7800톤은 옥수수, 11만 4600톤은 밀이었음. 현재 작업 중인 선박은 총 10척으로, 최대 크기의 선박은 적재중량(deadweight) 5만 8800톤의 수프라막스(Supramax) 급 선박 아키즈스타(Akij Star)임
- 곡물터미널의 운영업체인 EVT 그레인(EVT Grain)의 세르히 훈코(Serhiy Hunko) 대표이사

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체제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고객 니즈 충족에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직원의 보건 및 바이러스 예방에 대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음

그림. 미콜라이우 EVT 곡물터미널



자료: upf.com.ua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2%d0%b0%d0%bd%d1%82%d0%b0%d0%b6%d0%be%d0%be%d0%b1%d1%96%d0%b3-%d0%bf%d0%be%d1%80%d1%82%d1%83-%d0%bf%d1%96%d0%b2%d0%b4%d0%b5%d0%bd%d0%bd%d0%b8%d0%b9-%d1%83-%d0%b1%d0%b5%d1%80%d0%b5%d0%b7%d0%bd/2020/04/06/> (2020.4.6.검색)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2-%d0%be%d0%b4%d0%b5%d1%81%d1%8c%d0%ba%d0%b8%d0%b9-%d0%bf%d0%be%d1%80%d1%82-%d0%bf%d1%80%d0%b8%d0%b9%d1%88%d0%be%d0%b2-%d0%bf%d0%b5%d1%80%d1%88%d0%b8%d0%b9-%d1%83-%d1%86%d1%8c%d0%be%d0%bc%d1%83/2020/03/25/> (2020.4.6.검색)
- <http://adycontainer.com/development-of-international-multimodal-route-discussed-in-tashkent/> (2020.4.6.검색)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1%83-%d0%bf%d0%b5%d1%80%d1%88%d0%be%d0%bc%d1%83-%d0%ba%d0%b2%d0%b0%d1%80%d1%82%d0%b0%d0%bb%d1%96-%d0%b1%d0%b5%d1%80%d0%b4%d1%8f%d0%bd%d1%81%d1%8c%d0%ba%d0%b8%d0%b9-%d1%84%d1%96%d0%bb%d1%96%d0%b0/2020/04/06/> (2020.4.6.검색)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7%d0%b5%d1%80%d0%bd%d0%be%d0%b2%d0%b8%d0%b9-%d1%82%d0%b5%d1%80%d0%bc%d1%96%d0%bd%d0%b0%d0%bb-evt-%d0%b2-%d0%b1%d0%b5%d1%80%d0%b5%d0%b7%d0%bd%d1%96-%d0%bf%d0%b5%d1%80%d0%b5%d0%b2%d0%b0%d0%bb%d0%b8/2020/04/06/> (2020.4.6.검색)



주요 통계



표 1. 2019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2.29 (+1.8%)	7.14 (+0.3%)	19.43	+1.3%
북극해	2.6 (+0.6%)	6.13 (-2.7%)	8.72	-1.5%
발트해	8.89(-0.9%)	11.74 (-1.1%)	20.64	-1.0%
아조프-흑해	9.17 (+2.0%)	14.82 (+0.0%)	23.98	+1.0%
카스피해	0.29 (+2.6%)	0.41 (-5.9%)	0.7	+3.2%
합계	33.23 (+1.0%)	40.24 (-0.6%)	73.47	+0.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테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portnews.ru/news/288413/> (검색일: 2020. 3. 20)

표 2.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57,912.1	1,057,232.2	357,092.0	1,044,068.2	820.1	13,164.0
광물 제품	1,649,738.8	436,559.5	1,629,082.1	125,919.7	20,656.7	310,639.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87,385.4	112,461.3	1,387,267.8	112,417.7	117.5	43.6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673.7	752,268.8	3,850.7	744,393.9	823.0	7,874.9
가죽원료, 모피 제품	36.0	20,757.0	26.1	20,511.3	9.9	245.8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6,036.0	93,723.2	105,857.2	92,173.2	178.8	1,55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00.8	311,379.5	110.5	305,473.2	90.3	5,906.3
금속 및 금속 제품	35,929.1	682,979.8	35,795.9	667,699.6	133.2	15,280.2
기계류	266,960.6	4,511,042.9	244,270.7	4,499,061.2	22,689.9	11,981.8
기타	467,687.5	516,245.3	440,888.8	513,774.7	26,798.7	2,470.6
합계	2,889,174.5	8,382,188.3	2,816,973.9	8,013,075.0	72,200.6	369,113.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 (검색일: 2020.3.20)

표 3. 2019년 12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 생물	3	362.5	4	442.2	3	362.5	4	442.2	—	—	—	—
냉동어	108,005	2,098,303.5	1,885	50 582,0	107,876	2,097,570.8	1,885	50,582.0	129	732.8	—	—
연어류	11,513	378,792.9	—	—	11,502	378,537.9	—	—	11	255.0	—	—
넙치	140	30,445.5	—	—	140	30,445.5	—	—	—	—	—	—
가자미	1,460	16,305.0	—	—	1,460	16,305.0	—	—	—	—	—	—
가자미류	1,766	35,332.3	—	—	1,766	35,332.3	—	—	—	—	—	—
청어	35,915	112,421.4	—	—	35,797	111,962.6	—	—	119	458.9	—	—
대구	3,037	197,401.6	—	—	3,037	197,401.6	—	—	—	—	—	—
명태	49,212	953,818.1	—	—	49,212	953,818.1	—	—	—	—	—	—
농어	75	2,136.9	—	—	75	2,136.9	—	—	—	—	—	—
간, 곤이 (어란)	836	263,159.2	—	—	836	263,159.2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428	16,378.3	—	—	428	16,37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593	154,691.5	83	4 364,5	587	154,676.8	83	4,364.5	7	14.8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12	1,781.7	123	5 994,3	112	1,781.7	123	5,994.3	—	—	—	—

갑각류	6,690	1,116,114.2	73	2 893,5	6,690	1,116,114.2	73	2,893.5	—	—	—	—
계류	5,530	1,017,648.9	—	—	5,530	1,017,648.9	—	—	—	—	—	—
조개류	4,014	121,517.0	—	—	4,014	121,517.0	—	—	—	—	—	—
가리비류	25	12,183.4	—	—	25	12,183.4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3,910	78,145.1	26	2 957,3	3,910	78,145.1	26	2,957.3	—	—	—	—
수산 무척추 동물	1,174	34,369.2	—	—	1,174	34,338.8	—	—	0	0	—	—
해삼류	253	7,416.7	—	—	253	7,386.3	—	—	0	0	—	—
성게류	919	26,385.4	—	—	919	26,385.4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operativnaya-informacziya>(검색일: 2020.3.20)